

부루노, 바우흐(二)

現代 世界 唯一民族 哲學者

安浩相

바우흐가 칸트派와 헤겔派가 한편으론 될 수 잇스며, 또 다른 편으론 이派도 저派도 아니고, 제派 제대로인 것은 바우흐는 칸트와 헤겔의 哲學에서 근치고만 잇지 안코, 도리어 이들의 참된 생각과 偉大한 體系를 自己哲學의 基礎를 삼아서 自己의 獨特한 體系를 세웁스며, 또 獨逸의 正統哲學인 批判的理想主義哲學을 한 거름 더 發展시킨 새문이다. 그러나 그는 決코 어셔한 折衷 主義者가 아니다. 萬一 그가 한 折衷 主義者이 엇드러면 그의 哲學은 오즉 칸트와 헤겔 哲學의 長點들만을 쏘아 모은 한 混合體로서 決코 獨自性과 獨特性이 업슬 것이다. 그러나 그의 哲學의 體系와 特色은 칸트와 헤겔 哲學의 長點만을 쏘아 모은 데서 이뤄(成立)된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의 短點들을 發見하는데서 이러 졌다. 더 자세히 말하면 바우흐는 칸트와 헤겔이 이미 차저낸 그 眞理(眞理)들을 모으기(蒐集)만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들이 이미 차저낸 그 참들을 基礎삼아서 이들이 아즉 차저 내지 못한 眞理들을 차저낸 새문이다.

그러면 칸트와 헤겔보담 달이한 바우흐의 主張은 그 무엇인가? 여게서 그의 獨自의 特點들을 다 들수도 업슬 쏘더러 또 감히 觀察할 수도 업다. 만일 그러케 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特殊한 認識論問題인 새문에 여게선 오즉 그의 特點만 가지면 드러서 紹介할 싸름이다. 그 자세한 說明과 論證은 바우흐의 原書를 參考키 바란다.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오늘날까지 모든 論理學者들은 그 概念論을 그 判斷論에 압세웠다. 그러나 바우흐는 論理的 必然性에 依해서 判斷論을 概念論에 앞세웠다.(참과 價値와 現實 一三五—二八九頁)모든 認識論家는 그 否定的 判斷을 그 論理的 判斷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바우흐는 否定的 判斷은 主觀的 判斷(Subjektives Urteilen)은 될지언정 決코 論理的 判斷(Logisches Urteil)은 못된다고 하였다. (참과 價値와 現實 七一—七六頁)모든 哲學者들은

非價値(Umwert)의 잇음(存在)을 肯定하였다. 그러나 바우는 非價値의 잇음을 否定하였가(同著書 一五八—一六一頁) 바우흐가 主張하는 非價値의 否定性を 오늘날 獨逸의 價値 哲學派에선 만히 贊同한다. 이러한 特殊問題들을 다. 말할 수가 업고, 싣트로 한 가지 더 말하고저 할 것은 곳 바우흐의 「關係說」이다. 判斷과 概念은 무론이어나와 그 理念조차 關係(Ideals Beziehung)라고 그는 主張하였다. 여게서 인가튼 「關係」는 自然科學에서 말한 機械的 關係도 아니오. 社會科學에서 말하는 「論理的 妥當關係」이다. (그 理念 第三章參照)

三, 그의 論理 認識觀

여게서 바우흐의 論理 認識論을 認識論的으로 살펴보려고 하지 안코 다 못 그는 認識論에 對하여 어저한 態度와 또 認識論이 그의 哲學體系안에서 어저한 자리(位)와 職能을 가짓는가를 잠간 살펴려고 한다.

여러 哲學者들 가운데서 論理 認識論에 對해서 正確한 理解를 가진 이가 만타고 할 수 업다. 쏘만 아니라 認識論에 對해서 怯을 잔득 집어먹은 哲學者가 하나둘 쏘이 아니라 數도 여럿이다. 그들은 認識論에 對한 自己의 認識不足과 怯은 非難치 안코 도리어 認識論을 非難할 쏘이다. 그들은 有意識 無意識的으로 認識論에 對한 自己의 無知와 怯은 숨겨 버릴 여고 恒茶飯저와 가티이 말한다. 「우리겐 認識論이 아니라 그 人生觀이 必要타고 한다.」 여게 對해선 바우흐 또한 조금도 反對치아니한다. 쏘만 아니라 바우흐는 그들 보담 더 간절이 그 참된 人生觀을 要求한다. 바우흐는 참된 人生觀을 絶對로 要求하는 쏘문에, 그 認識論을 絶對로 要求하며 또 重要視한다. 김은 認識論이 업는데선 참된 人生觀조차 업다. 웨그러나 하면 아루 것도 아지(認識)치 못하고는 人生조차 알 수 업는 쏘문이다. 人生을 모른 人生觀은 人生觀이 아니라 人生狂이다. 人生을 모른 人生觀이 人生觀이 될진대는 何必 認識論을 排斥하는 哲學者들의 人生觀만 올타고 하랴! 無識쟁이거어지름웬의 人生觀이 또한 올은 人生觀일것이다.